

(사)등대복지회의 북한 장애인 지원사업

조 일*

I. 등대복지회 소개

사단법인 등대복지회(The Lighthouse Foundation)는 2004년 5월에 설립된 통일부 산하 비영리 민간단체로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북한을 포함, 국내 및 전세계 소외계층을 위한 인도적인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주로 대북지원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북한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식량, 의료, 복지, 체육, 문화 등 다양한 인도적 지원사업이 진행 중이며 특히 소외된 북한 장애인과 어린이에 대한 지원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등대복지회는 2004년 어린이 콩우유급식사업을 시작으로 육아원, 애육원, 고아원 지원 등 어린이지원사업을 주로 실시해 오다 2006년부터 장애인지원사업을 시작했다. 현재 북한 장애인지원사업을 공식적으로 실시하는 유일한 국내 민간단체로 장애인 콩우유빵공장, 장애인 문화센터,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운영 등 북한 장애인들의 기본 생계유지와 자생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병행 실시하며 남북 장애인교류의 물꼬를 튼 역할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2007년부터 실시한 북한 전역 각도에 소재해 있는 11곳의 특수학교 지원사업으로 장애인사업의 전국적인 거점을 확보하며 평양에 편중된 지원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효과도 나타내고 있다.

등대복지회는 현재 평양을 비롯하여 사리원, 강원도, 함경북도 회령까지 북한 전역 20여곳에 어린이, 장애인 사업장을 두고 지역별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사업을 전개하며, 정기적인 현지 모니터링 방문으로 분배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사)등대복지회 사무국장

II. 등대복지회 대복지원 분야

1. 장애인 지원

- 장애인 생계유지를 위한 식량 및 급식 지원
 - 장애인 콩우유빵공장 건립 및 운영지원, 급식시설 개선 지원
 - 장애인 콩우유, 빵 무료급식을 위한 생산설비, 식재료 정기 공급
- 장애인 재활치료, 직업훈련, 질병예방 및 진단, 치료 지원
 - 장애인 자립자활센터 운영 및 재활치료실 지원
 - 장애인 직업훈련자재, 재활장비, 보장구, 의료장비, 의약품, 의료용 소모품 지원
- 특수학교 급식, 교육, 생활 및 환경개선 지원
 - 북한 전역 11곳 특수학교 아동 기본 식량, 생필품, 특수교육 기자재, 의료용품 지원
 - 특수학교 위생환경 개선 및 급식체계 구축, 긴급의료 지원
- 장애인 교육문화, 예체능, 종합복지 지원
 - 장애인 문화센터 건립 및 운영 지원, 남북 및 국제 장애인 교류 주선
 - 장애 체육인, 예술인 양성을 위한 각종 운동기구, 악기류 지원
 - 장애인 종합 복지관 건립 지원

2. 어린이 지원

- 어린이 콩우유 빵급식 지원
 - 평양 '평화빵우유공장'과 사리원시 '사리원콩우유빵공장' 건립 및 운영지원
 - 급식 설비 및 급식재료 정기공급, 식량 자체생산을 위한 농자재 지원
- 아동교육, 생활 및 보육환경 개선지원
 - 황해북도 육아원분원, 사리원애육원, 미림학원 등 지방 어린이시설 지원
 - 급식시설 및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개선자재, 식량, 보육용품, 학용품 등 지원

□ 어린이 질병예방 및 진단, 치료 지원

- 질병치료, 진단 및 예방을 위한 의약품 및 의료용 소모품 지원
- 어린이시설 진료실 환경개선 및 기본 의료장비, 구급함 등 공급

3. 기타 취약계층 지원

□ 평양과 지방 취약계층 주민 식량 및 급식설비, 생필품 등 지원

- 평양, 함경도, 강원도 등 지방 양로원, 유치원에 식량 및 콩우유기계 지원
- 지방 주민들을 위한 긴급구호용 식량, 생필품, 비료 등 지원

□ 지방 취약계층 주민 의료 및 생활환경개선 지원

- 함경북도 회령시 회령산원 수술실 개선 지원, 산모와 영유아용 의료장비 및 의약품 지원
- 해외동포원호위원회 관할 지방 의료시설 지원, 구급차량, 치과장비, 의료용소모품 지원

Ⅲ. 북한 장애인지원사업

1. 사업추진 배경

1990년대 중반, 연이은 자연재해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북한을 돕고자 국내 민간단체들의 인도적 지원활동이 시작된 이래 식량, 의료, 농업, 환경개선 등 다방면에서 다양한 대북지원사업이 실시되었지만, 북한 장애인에 대한 접촉과 지원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2004년 설립 후 북한어린이 콩우유급식사업을 시작으로 인도적 대북지원활동을 전개해 온 등대복지회는 2005년부터 북한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보장구, 장애인차량 등 장애인용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북한 장애인 기구와의 접촉이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계기로 지속적인 논의 끝에 2006년 2월, 국내 민간단체 최초로 북한의 유일한 장애인 기구인 '조선장애자 보호련맹(KFPD)'과 공식 합의를 체결하고 북한 장애인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2. 북한 장애인 현황

1990년대 이전, 비교적 경제사정이 양호했을 당시 북한 당국이 장애인들에게 의족 등 기본 보장구를 정상적으로 공급하였으나, 1990년 이후 동구권 사회주의의 붕괴로 동유럽 시장과의 거래가 단절되고 자연재해의 연속으로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빠지자 국가로부터 지원이 끊긴 장애인들은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으로 더욱 고립되어 왔다.

2003년 6월 18일, 조선장애자지원협회(KASD: Korean Association for Supporting the Disabled)는 북한 최초의 장애자보호법을 제정하고 국제사회에 지원과 협력을 요청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서서히 표명해 왔다. 2000년대 초반에는 몇몇 국제단체의 도움으로 함흥교정기구공장, 시중호 요양소, 특수학교 등 장애인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이 이루어져 왔으나 북미 관계의 악화로 외부지원이 거의 단절되고 국내 경제난으로 북한 장애인들의 어려움은 커져 갔다. 2006년부터 등대복지회의 지원으로 장애인사업이 시작되면서 운영 활성화로 활동이 활발해진 KASD는 2007년 조선장애자보호련맹(KFPD: Korean Federation for Protection of the Disabled)으로 단체의 명칭을 변경하고 산하 기구들을 새로이 정비하는 등 위상을 한 단계 승격시키며 북한 내 장애인 인식개선과 홍보활동 등 적극적으로 사업 전반에 나서게 되었다.

북한은 선진국보다 장애범위가 넓지 않아 장애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1997년 인구조사가 실시된 이래 지금까지 북한 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집계되지 않았다. KFPD에 의하면 북한 장애인 인구는 전체인구의 3.4%에 해당하며 평양시내 인구의 약 1.9%에 해당한다. 2008년 10월 실시된 인구 센서스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북한 장애인 인구에 대한 통계학적, 전문가적 조사가 진행 중이다.

3. 장애인 지원사업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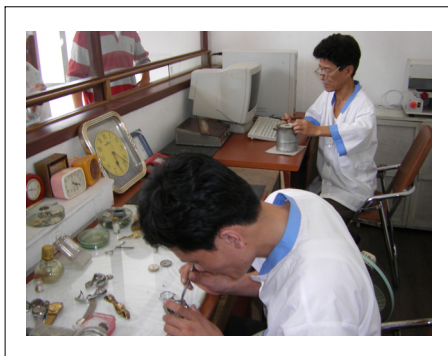
‘북한에도 장애인이 있나요?’ 장애인 지원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술하게 들어온 질문이다. 남북한 교류가 시작된 지 10여년이 지난 지금, 매년 10만명 이상의 남한인들이 북한을 오고 가지만 평양시내에서 장애인을 보거나 만났다는 사람들이 없는 실정이다 보니 이해도 간다.

그러나 등대복지회가 지원하고 운영하는 장애인 사업장에서 북한 장애인을 만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아니, 어쩌면 너무나 일상적이고도 당연한 일이기에 북한에도 장애인이 있다는 말을 믿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다. 아직 평양 시내에서 남한 처럼 흔하게 눈에 띄지는 않지만 등대복지회에서 운영하는 자립자활센터(장애인보호작업장)나 빵공장, 문화센터 등에서는 시각 장애인, 청각 장애인, 소아마비, 사지 절단 등 여러 부류의 장애인들이 봉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등대복지회의 장애인 지원 활동을 통해 북한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향후 인도적 지원을 통한 남북간 장애인 교류의 활성화와 발전방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장애인 자립자활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

장애인지원사업을 시작하면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북한 최초의 장애인자립자활센터로 평양 보통강구역의 낡은 5층 아파트 1층(469m²)을 개보수하여 2007년 5월에 개원했다. ‘보통강 종합편의’로 불리는 이 센터는 이발실, 미용실, 봉제실, 구두수선, 시계수리, 양복점, 도장, 사진인화, 목욕탕 등 각종 직업훈련실이 갖추어져, 장애인들이 직업기술을 익히며 경제력을 가진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응력 향상을 돕는 한편, 무료급식과 생필품, 의약품도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은 일정액의 보수를 받고 1일 3교대로 일한다. 이 곳 양복점은 본회 남한 대표단의 필수 방문코스가 되었다.



동 센터는 평양 시내에서 장애인을 상징하는 마크가 새겨진 유일한 건물이며, 휠체어 경사로가 처음 설치되고 북한 내 남한산 물자가 공식적으로 통용되는 장소로 당국으로부터 모범업소로 지정되어 이 곳의 각 서비스를 선호하는 평양 시민들에게 소문난 명소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장애인과 일반인이 함께 일하며, 서비스로 얻은 수익은 봉

사자들의 임금과 재료 구입 등 센터 운영에 사용된다. 특히, 동 센터에서는 무상지원 형태로 장애인들의 기본 생계유지를 돕는 동시에 자생력 향상을 위한 생산활동이 이루어져 인도적 지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등대복지회는 북측 KFPD와 공동운영 방식으로 매년 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자를 지원하며 정기적인 현장 모니터링 방문을 실시하고 있다.

2) 시각, 청각 장애아동들을 위한 특수학교 지원

북한의 특수학교는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학교로 맹아학교 3곳과 농아학교 8곳을 합해 북한 전역 각 도마다 1곳씩 총 11개의 특수학교가 있다. 등대복지회는 2007년 2월, 북측 KFPD와 공식지원 합의를 체결하고 이 학교 장애아동을 위한 콩우유와 빵급식 외에도 식량, 생필품, 농자재, 특수 교육기자재, 학용품, 예·체육용품 지원, 시설개보수, 직업훈련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소재해 있는 맹아학교 3곳(대동, 함흥, 봉천)과 농아학교 8곳(시중, 운전, 성천, 사봉, 함흥, 강원, 봉산)에는 총 1,500여명의 학생들이 모두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다. 역사, 수학, 사회 등 일반 과목 외 미용, 이발, 봉제 등 직업훈련을 위한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특수학교는 모두 지방에 소재하고 있고 이 학교들에서 생산된 콩우유와 국수, 빵 등 급식을 인근에 위치한 일반 학교에까지 공급할 수 있어 평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열악한 지방 학생들을 돕기 위한 교두보 역할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등대복지회는 시설부족과 제반 여건 미비로 더 많은 학생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북한의 실정을 감안하여, 현재 10세로 되어 있는 입학연령을 7~8세로 낮추는 조기교육을 위한 계획을 구상 중이다.

3) 장애인 무료급식을 위한 콩우유빵공장 지원

평양 대동강구역에 위치한 '장애인콩우유빵공장'은 2008년 4월에 건립되었으며,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북한 최초의 콩우유빵공장이다. 이 공장에서는 청각장애인, 소아마비 등 장애인들이 일반인과 함께 직접 생산활동에 참여한다. 생산된 콩우유와 빵은 장애인을 위한 무상급식을 우선으로 장애인



들과 인근 김만유병원 재활병동의 환자들에게 무료로 공급되고 있다.

재료 지원량에 따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판매수익도 올릴 수 있어 장애인 일자리 제공과 함께 자체 운영자금 조달 등 식량난 해소와 경제활동 지원 등의 복합적인 효과를 얻고 있다. 등대복지회는 콩우유와 빵생산에 필요한 각종설비 지원 외 매 두 달마다 밀가루, 콩, 설탕, 콩기름 등 생산재료를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4) 장애인 문화센터 건립 및 운영 지원

북한 장애인들의 지적, 예술적 능력개발과 인성교육, 문화활동을 통한 사회적응력 향상, 자신감 회복 등 단순 구호물품 지원만으로 얻을 수 없는 인권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일부 국제단체와 등대복지회의 지원으로 2009년 2월 건립되었다.

장애체육인 양성을 위하여 탁구, 농구, 배드민턴, 양궁 등 종목에 장애인 경기용 휠체어 등 체육기자재를 지원하며, 각종 악기류 지원으로 음악 및



문화예술인 양성을 돕고 있다. 2006년 등대복지회의 주선으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 9회 아태장애인올림픽경기 (FESPIC)에 북한 장애인 관계자 3명을 초청하여 북



한 최초의 장애인국제경기 참관을 주선하기도 했다. 북한은 이러한 본회의 지원에 힘입어 외부세계의 장애인 지원활동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맹아예술단, 농아무용단 등을 조직하고 기본 체육경기종목에서 장애인 선수를 양성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관련 국제회의 참석, 2012년 개최될 런던 장애인올림픽 참가 희망 등 대외활동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5) 장애인 재활치료 및 종합복지 지원사업

등대복지회는 장애인지원사업을 시작한 이래 가장 기본적인 지원분야로 장애인들의 재활

운동과 치료를 위한 각종 재활장비와 의약품, 보장구, 의료소모품 등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오고 있다. 김만유병원 회복치료과와 본회 지원 장애인 사업장들에 비치된 재활장비로 장애인 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를 입은 일반 환자들도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북한의 물리치료사와 의료 관계자들도 남한산 장비의 우수성을 인정하며 재활치료관련 책자와 기술교류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요청해 오고 있다.

본회는 장애인사업을 더욱 체계적이고 전국적으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 구심점 역할을 할 중앙센터의 필요성을 느끼고, 북측과 평양에 최초의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동 센터는 장애인 재활치료 외 각종 직업훈련, 장애진단, 무료급식, 문화공연, 특수아동 조기교육, 체육관, 목욕탕 등 기본 복지시설과 다양한 부대시설을 겸비한 종합복지관이자 중앙 본부로서 북한 장애인들의 재활, 복지 및 인권개선, 남북 및 국제 장애인교류 등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회는 이러한 활동 외에도 지방에 소재한 장애인 요양소와 관련시설들에 재활장비와 식량, 의약품을 공급하며 장애어린이시설 지원 등 북한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인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다.



4. 장애인 지원사업 효과

- 1) 인도적 지원사업을 통해 북한사회 장애인에 대한 인식변화와 인권개선, 지원효과를 통해 북한 당국의 장애인 정책변화를 유도함.
- 2) 전국 각도의 특수학교 지원사업 활성화로 지역개방, 지원대상 및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함.
- 3) 북한 장애인 생계유지와 재활, 직업훈련 및 기술지원을 통한 자립력, 사회적응력 향상

- 4) 장애인 자립자활센터, 장애인콩우유빵공장 등 무상지원과 경제활동을 병행하는 사업장 운영 방식으로 인도적지원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함.
- 5) 장애인문화센터 운영으로 장애인의 능력 및 기술개발, 체육예술인 양성으로 남북, 국제 장애인교류를 활성화시킴.
- 6) 인도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북한 장애인을 외부 지원의 수혜자로 이끌어 내어 장애인분야의 개방과 더욱 활발한 남북 협력관계 구축 효과
- 7) 남측의 지원을 통해 시작단계에 있는 북한 장애인 복지정책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미래 남북한 장애인 정책, 법률, 제도의 통일화로 통일비용을 줄이는 효과 창출
- 8) 지방 장애인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로 전국적인 분배투명성 확보기반을 구축함.

5. 향후계획

- 1) 장애인 자립자활센터 ‘보통강 종합편의’에 대한 지속적인 운영 지원 및 활성화
- 2) 장애인콩우유빵공장 식재료 지원으로 무료급식과 장애인 식량난 해소 완화
- 3) 특수학교 11곳에 대한 식량, 의료, 생필품, 교육 및 생활환경개선 지원
- 4) 장애인종합회복센터 건립으로 장애인 사업의 전국적인 구심점 마련, 장애인 종합 복지 향상 및 인권개선 도모
- 5) 장애인문화센터 운영지원으로 장애 체육인, 예술인 양성, 국제 및 남북 체육·문화 교류 주선, 장애인국제올림픽 참가 지원 등
- 6) 장애인 자생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7) 남북, 국제 장애인지원 단체 간의 간담회, 회의 등을 통한 협력체계 모색
- 8) 지방 장애인시설에 대한 식량, 의약품, 보육용품, 생필품 등 지원